불교적 사유로 포착한 수행자의 시선



컬러의 경계, 흑백의 문장
우현 스님 글·사진
담앤북스
2만원

SNS에 갈무리한 글과 사진
경전·선어록 현대어로 풀이
'나' 마주하는 사유의 순간

성낙두 경남지사장

SNS를 통해 우주의 질서와 진리를 사진과 글로 전하며 대중과 소통해 온 창원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이 최근 수행 에세이 〈컬러의 경계, 흑백의 문장〉을 펴냈다.

책은 차(茶)와 향(香), 명상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온 스님의 고요한 시선의 산물이다. 수행에서 비롯된 선적 감수성과 불교적 사유로 세상을 새롭고 낯설게 포착한 시선이 문장과 사진들로 고스란히 담겼다.

책은 비가 내리고 난 자리, 밝게 비친 이면의 그림자, 낮은 곳에서 역동하는 생명들, 발아래의 작은 공간 등 사진으로 포착된 '찰나의 순간'에 담긴 '억겁의 기억'이다. 또 당시 느낀 '사유의 흔적'을 화려한 수사나 장황한 설명 없이 선문답처럼 간명한 글과 함께 135편으로 엮었다.

광우 스님은 6월 1일 정법사 비로선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진리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책은 경전과 선어록을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내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자, 찰나의 경계를 오래도록 관조하며 길어 올린 생각들의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컬러 사진을 비중 있게 수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교의 진리를 한층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하기 위해 사진과 글을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찰칵'의 순간이 '지(止)'라면,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의미를 살피는 과정은 '관(觀)'"이라며 "사진은 불교의 지관(止觀) 수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도구로, 이 책은 사진을 찍는 순간 떠오른 순간의 사유를 담아낸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광우 스님은 "화려한 현실도 수행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 색들이 점차 옅어지고 결국 본질만 남는다"며 "컬러의 경계가 욕망과 분별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흑백의 문장은 이를 넘어 본질을 바라보는 수행자의 시선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 "컬러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수행자의 시선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찰나에 일어나는 일념(一念)'의 상징으로 책 표지에 붉은 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창원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6월 1일 정법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의 진리를 친숙한 일상의 언어로 전하기 위해 사진과 글을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부디 돌아보고 살펴보고 집중하고 사유하길' 바라는 스님의 시선은 책 곳곳에서 발견된다. 스님은 '흑유병(黑釉甁)'에 대해 "제법(諸法)은 부동(不動)하여 본디 고요한 것, 이름을 고집하지 않음으로 각각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진다"며 존재의 본질을 성찰한다. 또 '색신(色身)과 법신(法身)'에서는 숲과 콘크리트,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바라보며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방랑(放浪)'에 대해서는 "방랑하는 자만이 우울함에 지배되지 않는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광우 스님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좀 더 쉽게 전달하는 법을 고민하는 것이 화두"라며 "대중에게 불교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말보다 중요한 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삶"이라며 "앞으로도 몸짓의 언어와 삶의 모습으로 불법을 전하는 수행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정보와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사유와 질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짧은 영상과 요약된 정보에 익숙해진 시대일수록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작은 화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말로 사유하는 불교



불교, 쉽고 깊게 읽기
이도흠 지음
민족사
1만9500원

초기 경전 바탕으로 다시 쓴 불교
불교용어, 우리말 표현으로 풀어

같은 대상을 두고도 '소젖, 타락, 우유, 밀크'라 부를 때 느낌과 개념은 저마다 다르다. 언어가 바뀌면 사유의 틀이 바뀌기 때문이다. 난해한 불교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의 깊은 지혜를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낸 불교 개론서가 나왔다.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온 국어학자 이도흠 한양대 명예교수가 펴낸 〈불교, 쉽고 깊게 읽기〉가 그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불교 용어 체계를 우리말로 새롭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우리말로 불교 사유하기'를 위한 시도다. 이를 위해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 한문 용어의 맥락을 비교 분석해 가장 적절한 우리말 표현으로 대치했다. 그 결과 연기(緣起)는 '말미암아 나고 사라짐', 공(空)은 '나 없이 빔', 중도(中道)는 '올바른 가운뎃길', 사성제(四聖諦)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 등으로 풀어냈다.

이와 함께 책은 초기불교를 거쳐 대승·선불교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심화·확장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로 관련됨'으로 시작한 연기의 개념은 '의존하여 일어남'을 거쳐 화엄 사상의 '서로 말미암아 스며듦'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며 불교 사유 전체를 관통함을 표현하고 있다. 또 중도와 연기론을 바탕으로 공과 유, 윤회와 무아, 돈오와 점수 등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님을 증명한다.

나아가 저자는 오늘날 붓다가 살아계신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해방자 붓다', '자비로운 분노', '민중부처'와 같은 개념 도출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대승 경전의 과장과 신화를 걷어내고 초기 경전에 근거한 '역사' 속 인간 붓다의 삶을 39개의 에피소드로 복원한 붓다의 생애도 눈길을 끈다.

책은 이 같은 붓다의 삶을 비롯해 근본 가르침, 깨우침의 길, 수행과 열반의 길, 새로운 지평과 해석을 펼쳐 보인다.

이를 위해 저자는 2차 해설서를 배제하고 원전 경전에 집중했다. 경전 출처와 식별 번호를 명시함으로써 학문적 무게를 더했다.

배희정 기자

"K-명상 뿌리는 간화선"



십우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
인경 스님 지음 / 명상상담연구원 / 3만8000원



인경 스님은 5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간과 학술토론회 개최 소식을 알렸다.

인경 스님(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이 선문답과 간화선을 현대적 명상 수행 체계로 재구성한 신간 〈십우도와 함께 걷는 선문답과 간화선 명상수행〉을 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경 스님은 5월 19일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700공안으로 대표되는 선문답은 스승과 제자가 깨달음을 주고받는 문답 전통이며, 간화선은 이를 수행자가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정교화한 수행체계"라고 말했다.

책은 선문답과 간화선을 십우도(十牛圖)의 단계에 맞춰 풀어냈다. 이에 대해 인경 스님은 "십우도는 간화선 수행의 내적 여정을 형상화한 수행 지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특히 기존 십우도가 상징과 게송 중심으로 전승되면서 실제 수행 현장에서 활용할 구체적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책에서는 십우도의 열 단계에 맞춰 선문답과 공안을 배열하고, 수행과 연결되는 실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십우도 단계 맞춰 선문답·간화선 안내
현장서 활용 가능한 실천 지침서 출간
6월 13일, 조계사서 학술토론회 개최

이 책은 최근 확산되는 명상 열풍 속에서 한국불교 고유의 수행 전통을 'K-명상'으로 재조명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스님은 "위파사나나 티베트 수행은 외래 전통이지만, 선문답과 간화선은 한국불교가 독자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온 수행문화"라며 "가장 한국적인 명상 수행 체계가 바로 간화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의 2권인 〈선문답과 간화선: K-명상과 심리상담의 통합 프로그램 지침서〉는 전자책으로 출간됐다. 여기에는 십우도 단계별 선문답 해설과 연구 과제, 명상 실습 프로그램을 함께 담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12주 과정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인경 스님은 간화선 수행이 현대인의 심리 치유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몸과 마음 차원에서는 무기력과 우울감을 느끼지만, 본래의 자성은 우울에 물들지 않는다"며 "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우울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관찰하게 되고, 결국 본래면목을 체험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몸과 마음의 영역을 다루는 명상은 많지만, 간화선은 불성·본래면목이라는 보다 근원적 차원을 탐구한다"며 "이를 심리치료와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출간 기념 학술토론회는 6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불교학·철학·교육학·심리치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책의 의미를 분석한다. 1부에서는 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선문답과 간화선에서의 초기불교',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선문답과 간화선에서의 유식사상', 정도 스님이 '십우도 전체 구조와 선사상'을 주제로 논평한다.

2부에서는 이영순 마인드힐링센터 장이 '교육학적 의미',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중도사상',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화엄사상'을 주제로 각각 논평에 나선다. 이후 인경 스님과 참석자들의 종합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